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　2015. 11. 26 ~ 2015. 11. 28

출장지 :　중국 톈진

출장자 :　김동주 원장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Ⅰ. 출장개요

1. 출 장 지: 중국 톈진

2. 출장기간

- 김동주 원장 : 2015. 11. 26(목) ~ 2015. 11. 27(금), 1박 2일
-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 2015. 11. 26(목) ~ 2015. 11. 28(토), 2박 3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원장	김동주	1박 2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우	2박 3일

4. 출장목적

□ 제2회 동아시아재단-남개대학교 한중협력포럼 참석

□ 한-중 및 동북아 협력방안에 대하여 한국 및 중국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청취

□ '한국의 국토 미래전망과 실천전략' 발표와 토론

Ⅱ.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장소	주요 수행업무	관계자
11.26 (목)	인천			(10:15) 인천 출발(KE805)	
		톈진		(11:15) 톈진 도착	
			남개대학교	(17:00) 남개대학교 고위 관계자 면담	설진문 (남개대학교 당서기) 등
11.27 (금)			남개대학교	제2회 동아시아재단-남개대학교 한중협력포럼 참석(발표 및 토론) (09:00-10:50) 개회식, 기조연설 참석 (10:50-12:20) 1세션 '지역경제 발전과 에너지 발전전략' (13:40-14:10) 특별연설 (14:10-16:00) 제2세션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16:20-18:00) 제3세션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한중협력'	궁커 (남개대학교 총장) 등
	톈진	베이징		(15:00) 톈진-베이징 차량 이동	김동주 원장 : 1세션 참석 후 귀국
	베이징			(21:25) 베이징 출발(KE854)	
		인천		(00:20) 인천 도착(11.28, 토)	
11.28 (토)			남개대학교	(08:00-10:30) 한중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 참석	샤오진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지역경제연구소 소장) 등
	톈진			(12:30) 톈진 출발(KE806)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귀국
		인천		(15:15) 인천 도착	

※ 김동주 원장의 당초 출장일정은 2015년 11월 26일(목) ~ 28일(토)이었으나, 연구원 운영 관련 긴급한 협의로 인하여 1일 단축하여 11월 27일(금)에 귀국하였음

※ 이용우 선임연구위원의 당초 출장일정은 2015년 11월 26일(목) ~ 29일(일)이었으나, 11월 28일 오후 일정이 현지사정으로 취소되면서 1일 단축하여 11월 28일(토)에 귀국하였음

III. 수행사항

1. 남개대 고위관계자 면담

□ 일시 : 11월 26일(목), 17:00-18:00

□ 장소 : 남개대학교 성신빌딩

□ 참석자 :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권오규(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前 재경부장관/경제부총리), 김성환(강원문화재단 이사장, 前 외교통상부 장관), 이해찬(국회위원, 前 국무총리), 조원동(중앙대학교 석좌교수, 前 청와대 경제수석), 설진문(남개대학교 당서기), 자오치정(前 중국정협 외사위 주임, 남개대 빈해신구개발원 원장), 주광레이(남개대학교 부총장), 꽌나이쟈(남개대학교 부총장), 이춘복(남개대학교 주은래 정부관리학원 부교수) 등

□ 주요 논의내용

- 시진핑 정부 들어 텐진은 징진지(京津冀,베이징·텐진·허베이성)프로젝트, 일체화 협동발전 전략, 빈해신구개발, 국가자주혁신시범지역지정, 북방유일의 자유무역시범지역선정 등 5대 국가전략의 교차지역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음
- 텐진은 중-러-몽과 남북한,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여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임
- 지난 해 이어 개최되는 제2회 한중협력포럼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정관학계를 포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정책전문가들의 한중 협력 및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해 심층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국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함

2. 제2회 동아시아재단-남개대학교 한중협력포럼 참석

□ 일시 : 11월 27일(금), 09:00-18:00

□ 장소 : 남개대학교 성신빌딩

□ 참석자 : 궁커(남개대학교 총장), 뚜안춘화(톈진시 상무부시장), 자오치정(前 중국전국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남개대 빈해신구개발원 원장), 주광레이(남개대 부총장, 주은래정부관리학원 교수), 샤오진청(국가발전계획위원회 지역경제연구소 소장), 리우강(남개대 빈해개발연구원 부원장), 구오완이(창저우시 경제기술개발구 주임), 천하이(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주한국 중국대사관 부대사) 등

□ 주요 수행사항

◦ 포럼 일정

- 09:00-09:30 개회식

사회: 궁커(남개대 총장)

축사: 김성환(前 외교통상부 장관)

뚜안춘화(톈진시 상무부시장)

- 09:30-10:50 기조연설
  - 이해찬(前 국무총리, 국회의원)
  - 자오치정(前 국무신문판공실 주임, 前 중국전국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남개대 빈해신구개발원 원장)

- 10:50-12:20 제1세션 지역경제 발전과 에너지 발전전략

<사회>

  - 주광레이(남개대 부총장, 주은래정부관리학원 교수)
  - 권오규(前 경제부총리, 재경부 장관)

<발표>

  - 샤오진청(국가발전계획위원회 지역경제연구소 소장): "시진핑시대 국가발전전략: 징진지 일체화 구상"
  - 리우강(남개대 빈해개발연구원 부원장): "신생 자동차와 에너지산업 전망"
  - 김동주(국토연구원 원장)/이용우(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국토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 이보성(현대차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이사): "신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전망: 수소연료 전지차를 중심으로"

<토론>

  - 구오완이(창저우시 경제기술개발구 주임)

- 12:30-13:30 오찬

- 13:40-14:10 특별연설

  천하이(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前 주한국 중국대사관 부대사)

- 14:10-16:00 제2세션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사회>

  -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우즈청(남개대 주은래 정부관리학원 원장)

<발표>

  - 왕판(외교학원 부원장): "중국의 대북□대한반도정책"
  - 김성환(前 외교통상부 장관,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한반도의 미래와 중국"
  - 이춘복(남개대 주은래 정부관리학원 부교수): "중국의 시각에서 본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대북정책 포함)”

- 이우탁(연합뉴스TV 정치부장): “토론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사이에서 놓인 한국 외교의 길”
- 탕용셩(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 전략교연부 부주임, 소장): “중국의 주변외교전략”

<토론>

- 이도운(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 16:00-16:20 휴식

- 16:20-18:00 제3세션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한중협력

<사회>

- 양롱(남개대 아시아연구중심 주임)
- 조원동(중앙대학교 석좌교수, 前 청와대 경제수석)

<발표>

- 리시앙양(중국사회과학원 아태와글로벌전략연구원 원장): "일대일로와 한반도"
- 권오규(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前 재경부장관/경제부총리): "동북아번영을 위한 한중협력-동북아 개발은행 설립방안 검토"
- 리우천양(남개대 중국 APEC연구원 주임): “중국의 APEC과 한중일 지역협력정책 비교"
- 조원동(중앙대학교 석좌교수, 前 청와대 경제수석): “뉴노멀(new normal)시대 한중협력 방향”

◦ 발표 및 토론 요지

- 중국 경제 부상, 동북아경제권 강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한국 국토의 미래전망을 제시하고 한국 및 동북아 발전을 위하여 초국경 협력적 국토경영 등 발전전략을 발표함

- 경제 글로벌화, 초고속화, 디지털화는 한-중-일 3국간 초고속교통망 구축,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교류협력 증가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국가간 경계를 허물어 동북아시아를 초연계화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의 주거, 산업입지, 여가활동 등 생활공간과 기업활동공간의 확대를 가져오므로 동북아경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서울 수도권과 중국 징진지(京津冀,베이징·텐진·허베이성) 도시권간 비교연구의 필요성 검토

- 징진지(京津冀,베이징·텐진·허베이성)지역의 메가시티 구상 필요

3. 한중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 참석

□ 일시 : 11월 28일(토), 08:00-10:30

□ 장소 : 남개대학교 성신빌딩

□ 참석자 : 샤오진청(국가발전계획위원회 지역경제연구소 소장), 탕용셩(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 전략교연부 부주임, 소장), 차메이화(연변대 한반도연구협동창조중심 주임), 왕 판(중국외교학원 부원장) 등

□ 주요 논의내용

○ 동북아 혼란은 각국에 모두 불리하므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 추구가 중요

○ 중국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상호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구상은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망을 연결해 유라시아(유럽+아시아)를 포괄하는 운송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전력 · 가스 · 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전략

-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전략으로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전략

○ 징진지(京津冀,베이징·텐진·허베이성)의 메가시티리전으로 발전 모색 필요

- 메가시티리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정치, 경제제도의 글로벌화), 인프라(초고속광역교통망), 소프트파워(개방성, 포용성, 거버넌스 등)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징진지의 통합발전 중요 :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의 역할 분담 필요

- 베이징 집중 완화에 대한 대책 필요 : 대기 질 개선이 중요하며, 기업의 분산정책 추진 필요

○ 톈진은 국가전략에서 제시된 국제해운중심지, 금융시범지, 개혁선도지역으로 발전하여 해운 및 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징진지 발전을 선도하여야 할 것

- 톈진은 일대일로의 동쪽 허브로서 위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

〈참고 : 발표 요약〉

한국의 국토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김동주(국토연구원 원장)
이용우(국토연구원 국토계획 · 지역연구 본부장)

1. 국토의 과거와 현재

국토는 국민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고 국가발전의 토대이자 자원이다. 국토는 시대적 상황과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국민의 일상적인 국토이용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불과 한 세대 전인 1980년경 서울과 부산을 새마을호로 가면 4시간 50분이 걸렸다.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도, 편의점, 대형마트, 홈쇼핑도, 그리고 콘도, 자연휴양림, 캠핑장도 없었다.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7%에 불과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국토 이용 방법이 불과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2. 국토 여건변화와 영향 전망

국토 이용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는 인구 증가, 고도 경제 성장, 산업화, 도시화, 과학기술 발달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게 될까? 국토의 미래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과 그 영향은 무엇일까?

저출산.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문화 및 가치관 다양화, 과학기술 발달 및 융합,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 소득 증가, 동북아경제권 강화와 경제 글로벌화 등 메가트렌드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와일드카드적 변수 등 여건변화가 국토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종합하여 국토 미래를 5대 트렌드로 전망하였다.

3. 국토 미래전망 : 5대 국토트렌드

① **독립적 이용에서 시공간적 공유화** : 경제 글로벌화, 저출산 장수사회 도래, 가치관 다양화, 이용대상으로서 국토를 바라보는 인식 강화, 소비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국토 이용수요가 감소하고 국토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약화되어 공유적 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생활공간의 탈소유화 현상은 소유에 따르는 비용이 경제적 이득, 신분 과시 등 소유로부터 얻는 효용이나 가치를 넘어서면서 가속화될 것이다.

② **대량공급에서 수요맞춤화** : 과학기술 발달,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1인 및 2인가구와 고령인구 및 외국인 증가 등에 따라 국토이용은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가 충분한 미래사회에서는 파레토(pareto)법칙이 아닌 롱테일(long tail)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③ **분리특화에서 첨단융합화** : 사물인터넷을 통한 집에서 그리고 이동 중 네트워킹, 2040년 75%에 달할 무인자동차 등으로 새로운 첨단적 국토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각종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된다는 것과 수요측면에서 생활공간의 문제해결과 변화발전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대상이 늘어날 것이다. IT기반의 과학기술 발달과 대중화는 스마트 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④ **광역화에서 초연계화** : 초고속화 및 디지털화, 동북아경제권 강화, 저출산 장수사회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국토가 대도시 중심의 면적인 확장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되어 초연계화(超連繫化, hyper-connected)될 전망이다. 기존의 일방향적이었던 광역화와는 달리 모든 개체가 양방향적인 연관관계를 맺는, 즉 국토 공간이 상호간에 직접 그리고 다對다로 연결될 것이다.

⑤ **국토이용의 차별화 및 격차심화** :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및 1인가구 증가,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의 증가,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화와 초고속 첨단교통수단 등장 등은 차별화된 생활공간을 형성할 것이며 인구과소지역 등에서는 국토이용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4. 바람직한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발전전략

1) 미래 국토 비전

여건변화에 따른 국토영향 및 이슈분석 등을 종합하여 미래 국토 비전을 설정하였다. 한 세대 후인 2040년 바람직한 국토 모습으로 지향하여야 하는 비전(미래상)으로 글로벌 경제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국토공간 실현"을 설정하였다.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민이 행복한 국토공간으로서 국민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삶터(생활), 꿈이 있는 일터(일자리), 행복한 쉼터(여유.문화)"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2040 미래 국토 비전과 전략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안 연구

2) 미래 국토발전 전략

2040년 미래 국토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공간구조, 국토이용 및 관리, 국토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6대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미래 국토발전 전략은 향후 정책과제 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5,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안 연구
김동주 외, 2010~2012,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II)/(III), 국토연구원
이용우 외, 2012~2014,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III), 국토연구원